

화재관련 기술기준 등의 정비

1990년대의 시작을 알리는 연초의 흥분이 채가시지도 않은 듯 한데 벌써 거리에서는 성탄과 새해를 알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하장, 새해달력들이 추운 겨울과 연말연시가 가까와 졌음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난방용 화기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화재가 염려되더니 벌써 화재가 몇건이나 발생하였다. 거리를 달려가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재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하는 소방관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학계, 업계의 여러분들이 한결 고마워 지며,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어깨가 자못 무거워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대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 몇년전이던가. 이제 우리나라도 각종 법령, 기준 등이 완비되고 10여년에 걸친 기술축적 및 방재시험소와 같은 전문연구기관 설립 등으로 옛날 대연각호텔, 대왕코너와 같은 대형 사고가 빈발하던 불명예를 씻고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많이 줄이게 되었으니 정말 다행한 일이다. 이를 위해 한국화재보험협회와 같은 공익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화재예방 기술기준, 법령, 기타 기술자료들이 그 도입, 제정초기의 단계에 기초분야의 연구나 기술축적이 없었던 당시 우리나라 사정으로 인해 대부분 일본 등 외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 왔으나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 경제규모가 외국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많아 이에 대한 연구와 보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사실, 외국의 것을 모방함으로써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높은 기술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화재예방에 많은 기여를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화재에 대한 대책에는 사회, 경제, 과학기술 등 각 분야가 총망라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외국은 우리와

위한 연구 필요



박 현 구
<(주)화방 대표이사>

는 역사적 바탕도 다르고 또 산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더욱 이질적인 요소가 많아지므로 이를 그대로 모방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비근한 예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는 위험물 취급 플랜트에 대해 국가의 간섭없이도 구조물에 내화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사회적인 제도와 국민들의 안전개념이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성장우선주의에 밀려 내화조치와 같은 안전사항에 대해 소홀히 하여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법적제한이 필요하게 되는 점 등은 이의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내화기준의 경우 많은 부분에서 일본의 것을 인용하고 있으나 일본과 우리나라의 건축구조, 재료에 대한 비교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그대로 인용함은 과학적인 면에서 볼 때 비합리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가 방재시험소와 같은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보유한 기관에서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관계 부처 뿐만 아니라 학계,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처럼 기술기준, 법령 등을 우리 실정에 알맞도록 보완하기에 앞서 현재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각종 화재관련 용어와 우리말에 적당한 표기가 없어 저마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표기해서 쓰고 있는 기술용어 들을 우리말로 표준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일 역시 방재시험소와 같은 기관에서 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것은 지금 당장의 이익을 바라볼 수는 없으나 올바른 개념확립 및 방향의 제시라는 측면에서 앞날의 화재관련분야 종사자들을 위해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며 다음 단계로의 발전을 위해서 꼭 거쳐야 할 단계인 것이다.

이상 두서없이 적어본 사항들을 방재시험소에 거는 여러 사람들의 기대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도 할 수 있다.